

Category:Articles and Stories

Tags: Proclamation Evangelism, Lausanne 4

Word count: 4602

The Great Commission: A Theological Basis

대위임령: 신학적 근거

Victor Nakah and Ivor Poobalan

Introduction

서론

There is no gainsaying that the Great Commission is one of the most-used phrases within global Christianity today. It has been the slogan that has powered some of the greatest evangelistic initiatives of modern times. Its closest association is with Matthew 28:18-20, and the expression is so familiar to the Christian ear, that it sounds like a phrase straight out of Scripture. It isn't. What's more, the popular use of 'the Great Commission' is no older than a hundred and fifty years. How then did it gain such currency?

대위임령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대위임령은 현대의 복음주의 활동에 힘을 실어준 가장 위대한 슬로건이었다. 대위임령은 마태복음 28:18-20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경에서 바로 튀어나온 구절처럼 들리는 그 표현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익숙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욱이, '대위임령'이 대중적으로 사용된 지 150년이 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평가를 얻게 되었을까?

It was Hudson Taylor (1832-1905), who first brought this to the frontlines of mission-speak. He had apparently borrowed it from the writings of a Dutch missionary, Justinian von Welz (1621-1688), who had used it as a title for Matthew 28:18-20. For 1600 years until von Welz, or thereabouts, this Matthean text had primarily served a broader purpose: 'as the trinitarian foundation of ecclesiology, not as fanfare for missiology'.¹ This historical note is significant because the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climax of Matthew may inadvertently undermine the Christological and ecclesiological emphases of his account that provide the necessary context for Christian mission.²

이것을 처음으로 선교적 설교의 전면에 가져온 인물은 허드슨 테일러(1832-1905)였다. 그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제목으로 대위임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네덜란드 선교사 유스티니안 폰 벨츠(Justinian von Welz, 1621~1688)의 글에서 차용한 것 같다. 폰 벨츠가 살던 그 무렵까지 1600년 동안 이 마태복음 본문은 주로 '선교학에 대한 팡파르가 아니라 교회론의 삼위일체적 기초'라는 더 넓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¹ 이 역사적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의 절정의 기독교론적이고 교회론적 적용이 기독교 선교를 위한 필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마태의 설명에 대한 기독교론적이고 교회론적 강조점을 의도치 않게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

The effective employment of the parting words of Jesus in Matthew (and Mark) as a biblical basis for world evangelisation, however, preceded Hudson Taylor. These words had given impetus to William Carey's impassioned plea in 1792, which marked the turning point in modern missions.³ He wrote: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기초로서 마태복음(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말씀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은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보다 앞섰다. 이 말은 현대 선교의 전환점이 된 1792년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의 열정적인 호소에 자극을 주었다.³ 그는 다음과 기록했다:

Our Lord Jesus Christ, a little before his departure, commissioned his apostles to *Go, and teach all nations*; or, as another evangelist expresses it,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This commission was as extensive as possible, and laid them under obligation to disperse themselves into every country in the habitable globe, and preach to all the inhabitants, without exception, or limitation.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위임령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특징을 띠고 있는데, 예외나 제한을 두지 않고 거주가 가능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로 퍼져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그들에게 부과했다.⁴

Consequently, with the renewed thrust towards missions in Asia and Africa during the heyday of the British Empire, the final words of Jesus to his apostles in the Gospels and Acts received fresh attention. Within these pericopes—which narrated Jesus's post-resurrection appearances—were found scattered references specifying what the apostles were expected to do following Jesus's departure. Most importantly they pointed to

the international, global scope of their missionary undertaking, which resonated well with the existing world of European imperialism. As a result, these texts vied for attention as the ideal scriptural basis for motivating local churches to renew their commitment to cross-cultural mission and world evangelisation.

결과적으로, 대영 제국의 전성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새로운 추진력과 함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참신한 주목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내용을 기술한 이 본문(pericopes)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기대한 것을 명시한 흩어진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국제적이며 세계적인 그들의 선교사역의 범위에 주목했는데, 이는 기존 유럽 제국주의와 잘 부합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본문은 지역 교회들이 타문화권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이상적인 성경적 근거로서 주목을 끌기 위해 경쟁했다.

Furthermore, following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changed her foreign policy to engage more proactively with the nations of the world. This led US-based Christian mission agencies also to look outwards and to commit vast resources towards Great Commission work: the evangelisation of the unreached nations of the world.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국가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외교 정책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선교단체들도 외부로 눈을 돌리고 대위임령, 즉 전 세계 미전도 국가들의 복음화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게 되었다.

Roots of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의 뿌리

Broadly speaking, the Great Commission refers to the mandate that the Lord Jesus entrusted to the church through his apostles, to be operational in the period between his ascension and return. From a scriptural perspective though, rather than being an inaugural call, Matthew 28:18-20 may be viewed as the climax to a summons issued by God in the Old Testament, which dates back to the call of Abraham (Genesis 12:1-3). It is God calling a people to himself in order to make himself known to all humanity.⁵ This theme then continues to unfold in Scripture. There is hardly a discernible reading of any book of the OT that doesn't point to the 'Great Commission' theme directly or indirectly.

대체로, 대위임령은 주 예수께서 그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신 명령을 언급한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 28장 18~20절은 첫

번째 부르심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창 12:1~12)으로 거슬러 올라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소환의 절정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자신에게 부르시는 것이다.⁵ 이 주제는 성경에서 계속 전개된다. 구약성경에서 '대위임령'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God's mission mandate for Israel in the Old Testament is the great love God extended to nations beyond the Jewish people. We may see this in the promise that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on account of Abraham (Genesis 12:1-3) or in Isaiah's prophetic vision of a day when the gentile nations will stream to Zion to be instructed in the ways of Yahweh (Isaiah 2:1-4). God's commissioning of Jonah to go to pagan Nineveh (Jonah 1:2) powerfully illustrates this overarching Old Testament ideal of the mission of God through Israel.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명령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넘어 열방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창 12:1~3)이나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의 길을 따라(이사야 2:1~4) 교훈을 받기 위해 시온으로 향하게 될 날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적 환상에서 이 약속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욥 1:2)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구약성경의 전반적인 이상을 강력하게 예시한다.

The New Testament Basis for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의 신약성경의 근거

The most famous Great Commission texts have been taken from a collection of the direct farewell instructions from Jesus to his eleven apostles. In addition to the primary reference, Matthew 28:18-20, the following are usually included: Mark 16:15, Luke 24:46-49, and Acts 1:8.⁶ Taken together these texts share a number of common threads.

가장 유명한 대위임령 본문은 예수님이 열한 사도들에게 직접 고별 교훈을 하신 모음집에서 따온 것이다. 기본적인 참조본문인 마태복음 28:18~20 외에도 대개 마가복음 16:15, 누가복음 24:46~49, 사도행전 1:8 본문이 포함된다.⁶ 종합하면 이 본문들은 여러 공통적인 맥락을 공유한다.

First, they are spoken in the context of Jesus's highly-charged post-resurrection appearances to his disciples. In the early church, such narratives and their content would have acquired great significance as the final words of their victorious leader. Second, in every such instance, Jesus specifies the responsibilities that the apostles were to undertake: 'make disciples' by 'baptizing' and 'teaching' (Matthew), 'proclaim the gospel' (Mark), and 'be witnesses' (Luke and Acts). In the unfolding story of the church—as can be ascertained from Acts and the epistles of the New Testament—we see how these very activities took centre-stage: evangelisation through witness, proclamation and demonstrations of power, incorporation into the church through baptism, and maturation in discipleship through teaching. Third, each of them pointed to an international, global audience: 'all nations' (Matthew, Luke), 'all creation' (Mark), and 'the ends of the earth' (Acts).

첫째, 이 본문들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고조된 모습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내러티브와 그 내용은 승리한 지도자의 유언으로써 큰 의미를 얻었을 것이다. 둘째, 그러한 모든 경우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수행해야 할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다. 즉,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며'(마태복음), '복음을 선포'하고(마가복음), '증인이 되라'(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개되는 교회 이야기에서 우리는 증언을 통한 복음화, 선포와 능력의 나타남, 세례를 통한 입교, 그리고 가르침을 통한 성숙한 제자도라는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무대의 중심을 차지했는지 볼 수 있다. 셋째, 이 본문들 각각은 '모든 나라'(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든 피조물'(마가복음), '땅 끝'(사도행전)이라는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가리켰다.

Due to these features, these chosen texts provided the ideal grist for the mill of cross-cultural mission-motivation and offered a revised paradigm for world mission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nwards. Christians were urgently called to travel to previously unevangelised regions of the world and to win people to faith through personal witness and public proclamation.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선택된 본문들은 타문화권 선교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상적인 원재료를 제공했으며, 19세기 후반 이후 세계 선교를 위한 수정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기독교인들은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개인적인 증거와 공적인 선포를 통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도록 긴급한 부르심을 받았다.

In retrospect, it is clear that the explicit requirements of the selected Great Commission texts had significantly nuanced the theology and praxis of the missionary enterprise. The

emphasis on responding to social needs and working toward societal transformation—which had previously been considered an irreducible minimum in Christian mission—was increasingly marginalized and often dropped altogether. Such a separation of the societal dimension from the proclamation dimension of evangelisation would create enormous tensions within global Christianity and push the church inexorably towards some resolution of that tension. The later recognition and appropriation of the ‘Great Commission’ in John’s Gospel (20:19-23), enabled the church to do just that.

돌이켜보면, 선택된 대위임령 본문들의 명시적인 요구 사항들이 선교 사역에 관한 신학과 실천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전에 기독교 선교에서 축소할 수 없는 최소한으로 간주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 사회 변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점점 더 소외되고 종종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러한 복음화와 관련된 선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분리는 전 세계 기독교에 엄청난 긴장을 조성하고 교회는 그 긴장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가차 없이 밀어붙일 것이다. 후에 요한복음(20:19-23)에 나오는 '대위임령'을 인식하고 적용함으로써 교회는 바로 그런 긴장과 소외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다.

Matthew 28:18-20: Authority, Scope, and Purpose of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18-20: 대위임령의 권위, 범위, 목적

The Matthean Great Commission brilliantly summarises the concerns of the entire Gospel of Matthew² and is widely regarded as the fountainhead for understanding what Jesus expects of his church in the period between his ascension and return.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은 마태복음 전체의 관심사를 훌륭하게 요약하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원천으로 널리 간주된다.

The Great Commission was issued as a directive to follow, a command to obey, and a decree to execute. It was a mandate with unparalleled legitimacy. In Steve Harthorne’s words, ‘Never has there been such power in the hands of any person. He will never be surpassed. He will never surrender His kingship. He will never stop until He has finished the fulness of the Father’s purpose.’⁸

대위임령은 따라야 할 명령, 순종하라는 명령, 그리고 실행하라는 명령으로 공표되었다. 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당성을 지닌 명령이었다. 스티브 하손(Steve Harthorne)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분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⁸

In other words, the Great Commission is more than just a personal or political statement. It's a statement that announces the supremacy and universal Lordship of Jesus Christ. It is because of who Jesus is that we must call all people to faith in him and no other—to leave other allegiances, religions, false gods, and contradictory ideologies to follow him alone. 즉, 대위임령은 단지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선언 그 이상이다. 대위임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우주적 주권을 선포하는 선언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분만 따르도록 하기 위해 다른 충성심, 종교, 거짓 신들, 그리고 모순된 이념을 버리도록 촉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The Great Commission comes directly from the resurrected Lord, the head of all principalities and the possessor of all things. This communicates the weight of the commission and the debt we owe in its pursuit. We can't call him Lord and take his word for granted. The Matthean formulation is striking in its emphasis on comprehensiveness marked by the term 'all':

대위임령은 모든 정사의 주관자이며 만물의 소유자인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의 무게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빛을 알려준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마태복음의 공식은 '모든'이라는 용어로 표시되는 포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놀랍다.

1. *All authority*: Jesus assures his disciples of his all-encompassing authority: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is given to me.' He has the right to give orders, make decisions, and enforce obedience. This authority is legitimate because it has been 'given' to him, not stolen or snatched (Philippians 2:9-11). Moreover, it is not an authority limited to this world, but one which applies equally in both the terrestrial and celestial realms. The commissioner is not struggling to be in charge, 'For the Father judges no one but has given all judgment to the Son . . . And he has given him authority to execute judgment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John 5:22, 27).

1. *모든 권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권세를 확신시켜 주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고, 결정하며, 순종을 강요할 권리가

있다. 이 권세는 흠치거나 강탈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당하다(빌 2:9-11). 더욱이 그 권세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세다. 위임하는 자는 책임을 맡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요5:22, 27).

That the Great Commission is premised on this authority says a lot about the intent of God in getting the work done. With this authority, not only are we sure that we will be delivered from harm, but we are confident that when it matters most, we will not be let down, since the Father has put 'everything in subjection under his feet' (Hebrews 2:8). 대위임령이 이 권세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그 일을 완수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이 권세로 우리는 우리가 해악에서 구출될 것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히 2:8).

2. *All the nations*: When Jesus said, 'go . . .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he established the unlimited scope of the Great Commission. But we must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all not just to go and proclaim, but to 'make disciples of the nations' (bring people from all people groups to a true followership of the Messiah). It is not among a few carefully selected groups of people, but to all. This extensive scope of the commission suggests that in every generation, Christ's followers must seek to influence all to consider the valid claim of Jesus as Lord.

2. 모든 민족: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통해 대위임령의 무한한 범위를 확립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가서 선포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열방을 제사 삼으라'(모든 종족 집단들에게 메시아를 진정으로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는 부르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엄선된 소수의 집단이 아니라 모든 집단에게 해당된다. 이런 대위임령의 확장된 범위는, 모든 세대에 걸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도록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The call is to establish Christ-loving, sin-hating, God-honouring communities of worshipper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from nation to nation. It demands a measurable effort to harvest the obedience of those reached. The Great Commission's

fulfilment is not measured by the distances travelled as much as by the quality of the followership of those who were brought in and nurtured to give allegiance to Christ in their daily living.

부르심은 세대와 국가에 걸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순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위임령의 성취는 이동 거리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양육된 사람들의 제자도의 질로 측정된다.

3. *All the commands*: Those Christ sends must teach all his commands. The Great Commission forbids a selective attitude to Christ's demands on all who follow him. We cannot pick and choose or add what we like. His instruction is to teach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3. *분부한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그의 모든 명령을 가르쳐야 한다. 대위임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요구에 대해 선택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고 선택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예수님의 지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4. *All the way*: The way Jesus wrapped up the commission implies the continuity of his presence no matter the circumstance or the clime in which the Great Commission is carried out. He promised to be with his followers always, even till the end of the age. That end may mean the end of time or the end of the inhabited world, notwithstanding the danger, perils, and trials.

4. *항상*: 예수님이 사명을 마무리하신 방식은, 대위임령이 수행되는 상황이나 기후에 상관없이 그분의 임재가 계속된다는 것을 내포한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끝은 위험과 환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도래할 시간의 끝이나 세상의 끝을 의미할 수 있다.

This phrase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is comforting, no matter what assails us as we go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world. With this statement comes the certainty, the prestige, and the power of his all-time presence.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갈 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위로가 된다. 이 선언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의 확실성과 명망과 능력이 따른다.

Making Disciples as the Definitive Purpose

최종 목적인 제자 삼기

'Make disciples' is the core of Jesus's command in Matthew 28:19. In the Greek, the imperative form of this rare verb—*mathēteuō*—is uniquely used.⁹ 'Baptizing' and 'teaching' occur in participial form and are subordinate to the main command to make disciples.¹⁰ The Great Commission's discipleship assignment is both global and instructively cross-cultural. In the Great Commission, we see the dimension of God's passion for all peoples, tongues, tribes, and languages of the world. Jesus here uses the phrase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ethnos*). This goes beyond the generalisation of geo-political states to what has been termed 'people groups',¹¹ of which there are an estimated 17,453 in the world today.¹²

'제자 삼으라'는 것은, 마태복음 28:19에 나오는 예수님의 핵심 명령이다. 헬라어에는 이 희귀한 동사 명령형인 *mathēteuō*가 독특하게 사용된다.⁹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분사형으로 나타나며, 제자 삼으라는 주요 명령에 종속된다.¹⁰ 대위임령의 제자도 임무는 전 세계적이며 교훈적으로는 타문화권 선교에도 적용된다. 대위임령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언어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차원을 본다. 예수님은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ethnos*)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것은, 지정학적 국가를 '종족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것 이상인데,¹¹ 오늘날 세계에는 대략 17,453개의 종족 집단이 존재한다.¹²

With thousands of missionaries fanning out across the globe under the auspices of numerous mission societies, the evangelisation of the two-thirds world has reached unprecedented levels of accomplishment. Christian communities that had been planted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in the nineteenth century were watered by mass evangelistic initiatives of Western evangelical organizations in the twentieth. Simultaneously, unprecedented numbers of indigenous mission-movements throughout the Global South intensified efforts at witnessing to Christ in ways that were contextually effective.

수많은 선교 단체의 후원 아래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2/3세계의 복음화는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19세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개척된 기독교 공동체는 20세기에 서구 복음주의 단체들의 대규모 복음전도 활동으로 물들었다. 동시에, 남반구 전역에서 전례 없이 많은 토착 선교 운동이 상황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The result has been exponential church growth leading to the surprising realization by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at the face of Christianity was no longer stereotypically white. The image of Christianity in the world was more likely to be black African, Latin American, or East Asian.¹³ Philip Jenkins projected in 2002 that of 2.6 billion Christians estimated for 2025, '633 million would live in Africa, 640 million in Latin America, and 460 million in Asia. Europe, with 555 million, would have slipped to third place'.¹⁴

그 결과, 기하급수적인 교회성장이 일어났고, 21세기에 들어 기독교의 모습은 더 이상 전형적인 백인이 아니라는 놀라운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 기독교의 이미지는 아프리카 흑인, 라틴 아메리카 또는 동아시아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¹³ 2002년에 필립 켄킨스(Philip Jenkins)는 2025년에 추정되는 26억 명의 기독교인 중 6억 3천 3백만 명이 아프리카에, 6억 4천만 명이 라틴 아메리카에 그리고 4억 6천만 명이 아시아에 살 것이며, 유럽은 5억 5,500만 명으로 3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측했다.¹⁴

Timothy Tennent points to the unprecedented 5,000 percent growth of independent indigenous Christian movements in the Global South 'from only eight million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o 423 million by the close of the twenty-first century'.¹⁵

티모시 테넌트(Timothy Tennent)는 남반구에서 독립적인 토착 기독교 운동이 '20세기 전환기에 겨우 800만 명에 불과했지만, 21세기 말에는 4억 2,300만 명으로' 전례 없이 5,000%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¹⁵

Never since the early centuries has Christianity grown so rapidly in previously un-evangelised societies in Latin America, Africa, and Asia. The most-recent stories of church growth in Asia for example—in places such as China, Iran, and Nepal—are nothing short of miraculous, because the gospel has thrived in predominantly communist, Islamic, and Hindu contexts where sustained antipathy and hostility have been most vocal and active.

기독교 초기 이래, 이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히 성장한 적은 없었다. 예를 들어, 중국, 이란, 네팔과 같은 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장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이야기는 기적에 가깝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속적인 반대와 적대감이 최고조인 공산주의, 이슬람, 힌두교 상황에서 번성했기 때문이다.

Yet, unlike the apostolic and post-apostolic periods, the modern church's commitment to witness has not been accompanied by a concomitant commitment to disciple-making. As a result, we are forced to concede that today, global Christian spirituality is at risk of becoming 'a mile long and an inch deep'. In the evangelical church's enthusiasm to contend with liberal theology and assert the uniqueness of Christ and the necessity for evangelistic proclamation, did she fail to prepare adequately for the harvest of new believers that would emerge following the faithful witness of vibrant church communities?

그러나 사도 시대와 사도 시대 이후와는 달리, 현대 교회의 증거에 대한 헌신은 제자 삼는 헌신을 수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글로벌 기독교 영성이 '길이 1마일, 깊이 1인치'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싸우고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 선포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복음주의 교회의 열정 속에서, 활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증거에 따라 나타날 새로운 신자들의 추수를 위해 교회가 적절하게 준비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John 20:19-23: A Paradigm for the Great Commission

요한복음 20:19-23: 대위임령을 위한 패러다임

We noted above how the explicit emphasis on verbal witness and proclamation that characterized the selected Great Commission texts appeared to invalidate the longstanding Christian tradition of charity and social action as missional imperatives of the church. This tension has since led to the unfortunate dichotomization of 'evangelism' from 'social action' and has dogged missionary initiatives for much of the twentieth century.¹⁶

우리는 선택된 대위임령 본문의 특징인 구두 증언과 선포에 관한 명시적인 강조가 교회의 선교적 명령인 자선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오랜 기독교 전통을 어떻게 무효화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위에서 언급했다. 이러한 긴장은 이후 '사회적 행동'와 '복음전도'의 불행한 분리(dichotomization)를 초래했고, 20세기 대부분 선교 활동을 끈질기게 괴롭혔다.¹⁶

It was in such a context that another 'Great Commission' text gained prominence (John 20:19-23). Termed the Johannine Great Commission, the incorporation of this text within

the cluster of the Great Commission passages has played a major role in shaping our theology of the Great Commission.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대위임령' 본문이 명성을 얻게 되었다(요 20:19-23). 요한복음의 대위임령(Johannin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을 대위임령 구절들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의 대위임령 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John Stott is rightfully recognised for skillfully demonstrating its validity and contribution to a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Great Commission.¹⁷ Although this too belonged to the records of Jesus's post-resurrection appearances and instructions, its evident vagueness in terms of specific responsibilities had precluded its inclusion as a Great Commission text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am sending you.' John 20:21).¹⁸

존 스토틀(John Stott)는 대위임령의 타당성과 성경적 이해에 대한 공헌을 능숙하게 보여준 인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다.¹⁷ 이것 역시 예수님의 부활 후 나타나심과 교훈에 대한 기록에 속했지만, 구체적인 책임이라는 점에서 이 본문의 명백한 모호함으로 인해 대위임령 본문 포함되지 않았다. 대위임령 본문('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¹⁸

이것 역시 예수의 부활 후 현현과 지시에 대한 기록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면에서 모호함이 분명하여 대명령 본문으로 포함되기가 어려웠습니다('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21).¹⁸

Unlike the instructions given in the Synoptics and Acts, the Great Commission in John is conspicuous in its silence about specific tasks that the believers are expected to perform, such as to 'proclaim', or to 'witness'. It also shows no interest in detailing the specific contexts in which the church should conduct her commission, such as 'all nations', 'all creation', or 'the ends of the earth'.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어진 교훈과는 달리,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은 '선포'나 '증거'와 같이 신자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또한,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 '땅 끝'과 같이 교회가 자신의 위임을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다루는 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How then does John contribute to the church's understanding of her mandate from Jesus Christ? As we shall see, this unique formulation in John's gospel significantly broadens the scope of Christian engagement in the world. Rather than setting an agenda for the apostles

following Jesus's ascension, the Johannine Great Commission (20:21) presents a paradigm that they are to operate out of.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교회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의 이 독특한 공식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참여하는 범위를 상당히 확장한다. 요한복음의 대위임령(20:21)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기보다 그들이 수행해야 할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So, instead of specifying the tasks and activities that would accompany Christian mission or the places in which it would be conducted, the uniqueness of the Great Commission in John is that there Jesus tells his disciples how to think about what they are to do and where they are to do it.

따라서 기독교 선교에 수반되는 과업과 활동이나 그것이 수행될 장소를 특정하는 대신, 요한복음의 지상위임령의 독특성은, 그들이 무엇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Incarnation as the Posture of the Agents of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의 대리인의 자세로서 성육신

What did Jesus mean when he said,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am sending you' (John 20:21)? We can never understand how we are sent if we have failed to appreciate how the Father sent the Son. How indeed then did the Father send his beloved Son?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겠는가?

In response to this question, we are immediately drawn back to John's prologue and to its defining declaration of the Son and his mission: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1:14 ESV). Here we find that the fundamental posture of the divine Son was incarnational, expressed by two outstanding terms—'became flesh' and 'dwelt'.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요한의 서문과 아들과 그의 선교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으로 즉시 돌아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여기서 우리는 신적 아들의 근본적인 자세가 성육신이었으며, '육신이 되셨다'와 '거하셨다'라는 두 개의 두드러진 용어들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With regard to the former, John deliberately uses the Greek term *sarx* (flesh), which bore the connotations of corporeality, physical limitations, mortality, and passions. Within the Greek worldview of the time, *sarx* was considered antithetical to that which is spiritual and noble. John could have used other words to describe the incarnation of the divine Son, such as *anthrōpos* (human) or *sōma* (body). But his radical use of *sarx* underscores his intention to establish that Jesus became utterly human when he was 'sent' to do the Father's mission. He would identify completely with his human creatures as 'flesh' himself.

전자와 관련하여 요한은 의도적으로 육체성, 신체적 한계, 필멸성, 열정을 함의하는 그리스어 *sarx* (육체)를 사용했다. 당시 그리스 세계관에서 *sarx*는 영적이고 고귀한 세계관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요한은 신적 아들의 성육신을 묘사하기 위해 *anthrōpos*(인간)나 *sōma* (몸)와 같은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sarx*를 급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보냄' 받았을 때,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보하려는 그의 의도를 강조한다. 그분은 자신의 자신을 '육체'로 인간과 완전히 동일시하신다.

The second term—'dwelt'—is a translation of the unique verb *eskenōsen*, which John coined for the purpose of his incarnational Christology. Using the noun *skenos* (tent), and alluding to the Old Testament tabernacle in Israel, John creates the unique verb 'he tabernacled' to powerfully convey how the mission of Jesus demanded a settled presence in the world, by which the glory (1:14) and grace (1:17) of a holy God would be mediated to a rebellious humanity.

두 번째 용어인 '거하시다'는 요한이 성육신적 기독교론의 목적을 위해 고안한 독특한 동사 *eskenōsen*의 번역이다. 요한은 명사 *skenos* (장막, tent)를 사용하고, 이스라엘의 구약 성막을 암시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1:14)과 '은혜'(1:17)가 반역적인 인류에게 중재됨으로써 예수님의 선교가 어떻게 세상에 안정된 임재를 요구했는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독특한 동사 '장막을 치셨다'를 고안했다.

Such an understanding of Jesus's mission forces us to set the notion of the Great Commission within the broader frame of the whole of Jesus's person and work, as recorded in the gospels. No longer can the mission imperative to the church be limited to merely the selected texts from the Synoptics and Acts. While the latter may provide a sharp focus to the church's calling to be verbal witnesses to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Johannine text challenges and directs us to embrace the consonant paradigm and broader demands of that calling.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격과 전체 사역이라는 더 넓은 틀에서 대위임령의 개념을 설정하도록 몰아간다. 교회에 대한 선교 명령은 더 이상 단순히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선택된 본문에만 국한될 수 없다. 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증거하는 교회의 소명에 예리한 초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그 소명에 대한 조화로운 패러다임과 더 넓은 요구를 포용하도록 도전하고 지시한다.

When we take a fuller understanding of Jesus's life and ministry into account for expressing the Great Commission, we note how the Lord seamlessly wove public proclamation, acts of compassion, demonstrations of power, and meaningful presence into his sustained witness to the in-breaking of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대위임령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더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공적 선포, 긍휼의 행동, 능력의 입증, 의미 있는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분의 지속적인 증언에 어떻게 원활하게 엮으셨는지 주목하게 된다.

In the same way, we would argue that evangelistic witness to the gospel of Jesus as Saviour and Lord is most effectively accomplish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church's proclamation, praxis, and presence in the world. It is to such an integration of missional priorities that the church must aspire, as she renews her commitment to the Great Commission.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세주와 주님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복음전도적 증언이 교회의 선포와 실천, 그리고 세상에서의 현존을 통합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된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대위임령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열망해야 할 것은 선교적 우선순위의 이런 통합이다.

Conclusion

결론

People with a kingdom mindset are known to take the Great Commission seriously in their everyday life. They carry the message of the kingdom—God’s victory over sin and Satan—with daring convictions. They pursue the mission of the kingdom and world evangelisation of all peoples till Christ’s name is known and honoured worldwide. This critical kingdom value drives them.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대위임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영광을 받을 때까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모든 종족 집단의 복음화를 추구한다.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들을 움직인다.

If we are the beneficiaries of God’s good news in Jesus, we receive power to become disciples—students and followers—of Jesus our master. The Holy Spirit gives us the power to be witnesses. And if we are truly learning from him, what we’re learning is too good to keep to ourselves. We will be led to share it. That is the nature of the Christian faith and the direction of the Holy Spirit, who is always leading us to testify about Jesus and glorify him (John 15:26 and 16:14).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s of church congregations with hundreds of millions of followers of Jesus Christ. But to successfully execute the Great Commission, we need a fitting church with Great Commission hearts and minds. We must raise a community of believers united in purpose and pursuit, seeking to carry out Jesus’s command to the letter. We need church leaders who understand the very heart of the Great Commission.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의 수혜자라면, 우리는 주 예수님의 제자, 즉 학생과 추종자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성령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에게 배우고 있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너무 좋아서 혼자만 간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요 15:26; 16:14).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억 명의 추종자들과 수 십만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나 대위임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위임령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적합한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면서 따름의 목적으로 일치된 신자들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대위임령의 핵심을 이해하는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다.

The Great Commission is not an end in itself; it is a means to an end. The future is the presence of all tribes, tongues, nations, and languages worshipping the King at the end of the age. In the words of John Piper: 'The end is not missions. Worship is. Mission is only a means to an end. Missions exists because worship does not.'¹⁹ To put it another way, when the Great Commission is carried out with biblical faithfulness, it will lead to the worship of the King from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대위임령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미래는 세상 끝에서 왕을 경배하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언어의 현존이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마지막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¹⁹ 달리 말하면, 대위임령이 성경적 신실함으로 수행될 때, 세상 모든 열방들이 왕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Endnotes

주

1. Robbie F Castleman. 'The Last Word: The Great Commission: Ecclesiology' *Themelios* 32, issue 3 (2007), 68.
2. 'It is inadmissible to lift these words out of Matthew's gospel, as it were, allow them a life of their own, and understand them without any reference to the context in which they first appeared.'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1991), 57.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떼어내어 그 자체의 삶을 허용하고 그 말씀이 처음 등장한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1991), 57.
3. Timothy Tennent, *Invitation to World Missions* (Grand Rapids: Kregel, 2010), 258-264 참조.
4. William Carey,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 (London: Hodder & Stoughton, 1792), 7.
5. 'The Church from all nations stands in continuity through the Messiah Jesus with God's people in the Old Testament. With them we have been called through Abraham and commissioned to be a blessing and a light to the nations.' An excerpt from *The Cape Town Commitment* in J Cameron ed. *The Lausanne Legacy* (Massachusetts: Hendrickson, 2016), 124.

'모든 나라로부터 나온 교회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계승한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나라를 위한 복과 빛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다.' *The Cape Town Commitment* in J Cameron ed. *The Lausanne Legacy* (Massachusetts: Hendrickson, 2016), 124에서 발췌.

6.If we follow the logic that has undergirded the identification of these 'Great-Commission' passages—direct, parting instructions by Jesus to his apostles in terms of their specified responsibilities—one other similar but neglected text demands our attention: Acts 26:15–18. It is the account of the great commissioning of Paul by the risen Christ. The fact that the Book of Acts alludes to Paul being in effect the twelfth apostle—although in his words, 'as one abnormally born' (1 Cor 15:8) —makes his unique commissioning and the scope of his calling as 'the Apostle to the Gentiles' (Gal 2:8) of great import in determining our Lord's intention for the church's mission. It would seem that the potential of these referenc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developing the New Testament basis for contemporary world mission.

만일 우리가 이러한 '대위임령' 구절(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구체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분리된 지시)을 식별하는 논리를 따른다면, 사도행전 26:15-18과 같은 이와 유사하지만 무시되는 또 다른 본문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이야기이다. 비록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고전 15:8)이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을 사실상 열 두 번째 사도로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독특한 위임과 교회의 선교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이방인의 사도'(갈 2:8)로서 그의 소명의 범위를 구성한다. 현대 세계선교를 위한 신약성경의 근거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러한 잠재적인 참고문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 'Matthew has, as if in a burning glass, focused everything that was dear to him in these words and put them as the crowning culmination at the end of his gospel.' Gerhard Friedrich cited in Bosch, *Transforming Mission*, 57.

'마태는 마치 불타는 유리 속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이 말에 집중했고 그것을 그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최고의 정점으로 두었다.' Gerhard Friedrich cited in Bosch, *Transforming Mission*, 57.

8. Ralph D Winter and Steve Hawthorne ed.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A Reader* (Pasadena: William Carey, 2009), 99–101.

9. Of only four occurrences of *mathēteuō*, three are in Matthew (13:52, 27:57, 28:19; Acts 14:21). *matēteuō*가 네 번 나오는 데, 세 번은 마태복음에 나온다(마 13:52, 27:57, 28:19; 행 14:21).

10. 'Encompassing all these efforts is discipling. Not only does it involve the other components of ministry – sending, going, preaching, witnessing, baptizing, teaching, and receiving the Spirit – but it directs every activity to the desired end, namely, to “make disciples” of Christ – men and women who not only believe the gospel but also continue to follow the way of Jesus.' Robert E Coleman. *The Great Commission Lifestyle* (Grand Rapids, MI: Revell, 1992), 19–20.

'이 모든 노력을 포괄하는 것이 제자화다. 그것은 사역의 다른 요소들(파송하고, 가고, 설교하고,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성령을 받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목적을 위한 모든 활동, 즉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남자와 여자-을 지시한다.' Robert E Coleman. *The Great Commission Lifestyle* (Grand Rapids, MI: Revell, 1992), 19–20.

11. Coleman, *Great Commission Lifestyle*, 20: 'The words do not refer to geographic boundaries, but rather to all peoples of the earth.'

Coleman, *Great Commission Lifestyle*, 20: '이 단어들은 지리적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Global Summary.' *The Joshua Project*. Accessed 29 September 2023. <https://joshuaproject.net/>.

13.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 '[T]he stereotype holds that Christians are un-Black, un-poor, and un-young. If that is true, then the growing secularization of the West can only mean that Christianity is in its dying days. Globally, the faith of the future must be Islam. Over the past century, however, the center of gravity in the Christian world has shifted inexorably southward, to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 '고정관념은 기독교인이 흑인이 아니고, 가난하지 않고, 젊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점차적인 서구의 세속화는 기독교가 죽어가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종교는 이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의 무게 중심은 가차 없이 남쪽, 즉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이동했다.'

14. Jenkins, *Next Christendom*, 3.

15. Timothy C Tennent. 'Lausanne and Global Evangelicalism: Theological Distinctives and Missiological Impact' in Margunn Serigstad Dahle, Lars Dahle, Knud Jorgensen eds. *The Lausanne Movement: A Range of Perspectives* (Oxford: Regnum, 2014), 58.

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ngelistic and the societal dimensions of the Christian mission constitutes one of the thorniest areas in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mission.' Bosch, *Transforming Mission*, 401.

'기독교 선교의 복음전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사이의 관계는 선교 신학과 실천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이다.' Bosch, *Transforming Mission*, 401.

17. 'The "Great Commission" in John has not been generally perceived by either missiologists or evangelists. In recent times, we owe it to John R. W. Stott, "the architect of the 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1974), the open recognition of a Johannine version of the last commission.' Mortimer Arias and Alan Johnson. *The Great Commission-Biblical Models for Evangelism* (Nashville: Abingdon, 1992), 79.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은 선교학자나 복음전도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최근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에 대해 공개적인 인정하는 데 있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1차 로잔 대회"의 설계자(1974)인 존 스토틀(John R. W. Stott)에게 빚지고 있다. Mortimer Arias and Alan Johnson. *The Great Commission-Biblical Models for Evangelism* (Nashville: Abingdon, 1992), 79.

18. '[John Stott] confessed that he had missed it because he had concentrated on the verbal proclamation of the "three other major versions of the Great Commission" (in the Synoptic Gospels). Arias and Johnson, *The Great Commission*, 79.

'[존 스토틀]는 "대위임령의 다른 세 가지 주요 버전"(공관복음서)을 구두로 선포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쳤다고 고백했다. Arias and Johnson, *The Great Commission*, 79.

19.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Grand Rapids: Baker, 2003), 17.

Author Bios



Victor Nakah is an ordained Presbyterian minister and the international director for sub-Saharan Africa with Mission to the World (MTW), the mission sending agenc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He holds master's and PhD degrees from the University of South Africa and Stellenbosch University.

Victor served with Scripture Union and IFES in Zimbabwe before becoming the seminary president of the Theological College of Zimbabwe from 2000-2010. He was chair of the Lausanne Cape Town GlobalLink initiative and was on the drafting committee of *The Cape Town Commitment*. He has also held leadership roles with Overseas Council International and CURE International.

In addition to his primary ministry responsibilities with MTW, Victor supervises students with the South Africa Theological Seminary (SATS), teaches at the Africa Reformation Theological Seminary (ARTS) in Uganda, and serves on a number of boards including the Child Theology Movement-Africa, Khulasizwe Trust (Zimbabwe), Emmanuel Christian University (South Sudan), Partners in Health Trust (Zimbabwe), and Forgotten Voices International (US).

Victor serves the Lausanne Movement as the co-chair of the Theology Working Group. He is married to Nosizo and they have two daughters.

빅터 나카(Victor Nakah)는 장로교에서 안수 받은 목사이며, 미국 장로교(PCA)의 선교사 파송 기관인 세계선교부(MTW)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제 이사이다. 그는 남아프리카 대학교와 스탈렌보쉬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다.

빅터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짐바브웨 신학대학의 신학교 총장이 되기 전에 짐바브웨의 성서 유니온과 IFES를 섬겼다. 그는 로잔 케이프타운 GlobalLink 이니셔티브의 의장으로 섬겼으며, 케이프타운 서약 초안 작성 위원회에 참여했다. 또한, 그는 Overseas Council International 및 CURE International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았다.

MTW에서의 주요 사역 외에도 빅터는 남아프리카 신학대학원(SATS)의 학생들을 감독하고, 우간다의 아프리카 개혁 신학대학원(ARTS)에서 가르치며, 아프리카 어린이 신학 운동을 포함하여 Khulasizwe Trust(짐바브웨), Emmanuel Christian University(남수단), Partners in Health Trust(짐바브웨) 및 Forgotten Voices International(미국) 등 여러 단체의 이사로 섬기고 있다.

빅터는 로잔 신학위원회(Theology Working Group) 공동 의장으로 로잔운동을 섬기고 있다. 그는 노시조(Nosizo)와의 사이에 두 딸을 두었다.



Ivor Poobalan has served as the principal at Colombo Theological Seminary (CTS) in Sri Lanka since 1998. CTS is an evangelical, interdenominational, trilingual seminary. Ivor's first job was as youth pastor for churches in Colombo. He graduated with honours from the London School of Theology (UK) with a BA in theology and from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Illinois, US) with a ThM in Old Testament and semitic languages. In 2015 he was conferred a PhD by the University of Cape Town for his dissertation titled 'Who is "The God of This Age" in 2 Corinthians 4:4?'

Ivor serves the Lausanne Movement as the co-chair of the Theology Working Group. He is married to Denisa and they are parents to daughters Anisha Eng and Serena.

아이보 푸발란(Ivor Poobalan)은 1998년부터 스리랑카의 Colombo Theological Seminary (CTS)에서 교장으로 섬겼다. CTS는 복음주의, 초교파 신학교로서 세 개 언어를 사용한다. 아이보의 콜롬보의 지역교회에서 청소년 목사로 사역했다. 그는 런던신학대학원(영국)에서 신학 학사학위를, 트리니티 국제대학교(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구약성경과 셈어 전공으로 석사학위(Th.M.)을 취득하여 우등으로 졸업했다. 2015년 아이보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이 시대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이보는 로잔 신학위원회(Theology Working Group) 공동 의장으로 로잔운동을 섬기고 있다. 그는 아내 데니사(Denisa)와의 사이에 두 딸 애니샤 앵(Anisha Eng)과 세레나(Serena)가 있다.

Meta Description

Explore the biblical roots of the Great Commission, the progress of evangel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 what exactly the Commission entails and how Christians today should be responding in obedience.

대위임령의 성경적 뿌리,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진보, 대위임령이 정확히 무엇을 수반하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순종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라.

SEO Title

Evangelizing the World: Proclamation, Praxis and Presence

세계 복음화: 선포, 실천, 현존

